김용민브리핑

2016년 9월 26일 월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불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아름다운재단
02-766-1004
www.beautifulfund.org

전통방식 숙성! 최고의 맛은
알싸한홍어
1599-6456, 010-9384-7970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정성농장홍삼
041-754-0884, 010-9754-6972
jeongseongfarm.com

안티요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비타샵
031-783-6007
vitashop.co.kr

예쁜 구렁이 똥! 장 청소는
미궁장사랑
070-4115-0365, 010-2892-0365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수아비스화장품
1688-9113, 031-717-1613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풍무양고기
031-902-9292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매트리스엠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촉물은
내피알
032-519-4800
nepr.co.kr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킨텍스점
facebook.com/tartfarm13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이담채김치
1544-4586
edamche.com

3D 실물 피규어 수공예품 제작
메이드바이어스
010-5633-6036
madebyus.co.kr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전창걸의새싹땅콩차
070-8635-1288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좋은사람과플라워
1566-0263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월7천원운전자보험카페
02-849-9730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와우전복
010-2443-0818
wowabalone.modoo.at

한우 사골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연지연곰탕
010-7252-1114, 031-989-9968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기로에 선 박근혜의 선택은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오늘은 65세가 된 대통령 박근혜 씨가 최태민 일가와 처음 만난 1975년 이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홀로 내리는 두 번째 날일지 모릅니다.

이게 과장이 아닐 이유는 단지 최순실이 부재한 형국인데도 국정은 올스톱 됐고, 각료들은 공식적인 권력서열 넘버3인 경제부총리부터 대통령을 만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기 때문입니다.

국정공백에 대해 조선일보도 1면에서 "정부가 멈춰 섰다"며 염려했습니다. 속히 '중립내각을 구성하자' '그래서 보수정권 재창출을 위해 14개월 시간을 벌자'는 저의가 담겨 있겠습니다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머리는 빌리면 된다"며 경제 문제를 전문가에게 과도하게 의존했다가 말년에 외환위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에게 빌려서도 안 될 머리를 무당 점쟁이에게 빌렸던 박근혜 씨.

그가 존치하는 구조에서 해법, 대안, 탈출구는 없습니다. 박근혜 씨는 더 늦기 전에 하야해야 합니다. 고민이나 아집이 길어지면 국민만 낭패를 봅니다.

박근혜 씨 없다고 흔들릴 국체가 아닙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했던 "하야하면 혼란이 오지 않는다. 지금보다 나빠질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 적확합니다. 또 우리의 헌법이나 정치주체가 무당 점쟁이에게 휘둘렸던 박근혜 씨의 지도를 받을 만큼 저열하지 않습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기온은 9도로 예상됩니다. 하야하기 좋은 날입니다.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1월 2일(수) 1부 | 안종범 "대기업 삥뜯기, 박근혜가 시켰다"

[오프닝] 심각한 국정공백…박근혜하야로 돌파구 찾아야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국정농단 시작과 끝에 박근혜 씨가 있다.
-박근혜, 경제부총리·정무수석과도 '불통'
-안종범 "난 대통령 지시받고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최순실, 안봉근 차 타고 청와대 관저 출입… 잠도 자고 가"
-친박계몰락은 시간 문제… 새누리 의원 절반이 등 돌려
[뉴스듣기 능력평가] 후한말 십상시 판치던 시절 관련 퀴즈
[국제 뉴스의 맥] 황준호 한반도국제전문기자
-일부 조사에서 트럼프 '역전'…FBI 선거개입 논란 가열
-미 6자회담 대표, 왜 중국과 만났나…'한국 소외론'의 단면?
[경제의 속살]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경제학자 안종범, 역사에 남을 치욕 경제학도에 남겨
-최순실에 상납한 재벌들, 정말 삥뜯긴 피해자 맞나
[공화국 논평] 여권 '잠룡' 5인방에 대한 중대 조치

문제는 박근혜

한겨레 국정농단 시작과 끝에 박근혜가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대통령 박근혜 씨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씨가 미르, K스포츠재단에 깊이 관여해온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먼저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은 대기업들이 미르,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것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모금행위였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또한 두 재단에는 수시로 대통령, VIP의 뜻이라면서 사업 과제가 맡겨졌다. 미르재단 이성한 전 사무총장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전화를 걸어와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K스포츠 정현식 전 사무총장 역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VIP 관심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박근혜 씨는 지난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연설문이 최순실에게 전달된 사실을 시인했다. 여기에 더해 군사기밀, 국무회의 자료, 장관의 보고서 등 다양한 청와대 보고서들이 최순실에게 건네진 정황들을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씨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면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박근혜 씨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규명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겨레 분석.

경향신문 朴, 일정 취소로 국정 '진공상태'

대통령 박근혜 씨가 두문불출하고 있다. 이번주 들어 외부행사를 생략하고, 정국 관련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다. 먼저 박근혜 씨는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습책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문고리 3인방 등 손발이 되어 온 핵심 측근들을 경질했다. 하지만 여론은 더욱 악화되며 새누리당 마저 등을 돌리며 일부에선 박근혜 씨의 탈당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씨의 지지율은 9%로 급락했고 국민들 대부분은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수족들이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박근혜 씨가 국정을 '진공상태'를 만들고 있다.

한국일보 朴, 경제부총리·정무수석과도 '불통'

대통령 박근혜 씨가 스스로 국정농단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박근혜 씨에게 대면보고를 한지 한달이 넘었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씨의 사람으로 알려진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하던 11개월 동안 단 한차례도 박근혜 씨를 독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총 책임자인 경제부총리는 물론 정치권과 대화 창구인 청와대 정무수석과도 소통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겨레 朴 지지도, 9.2%로 '식물정권' 상태

내일신문이 조사한 결과 대통령 박근혜 씨에 대한 지지도는 9.2%를 나타냈다. 50대와 60대 이상, 대구, 경북 등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사퇴해야 한다는 70%에 육박했다. 또한 문화일보의 조사결과 국민들의 절반 가까이는 박근혜 씨의 탄핵이나 하야를 주장했다.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포함하면 국민의 약 4분의 3이 박근혜 씨의 2선 후퇴에 동의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일보 챙기는 사람 없는 위기의 한국경제

수출감소와 내수 부진, 1300조원을 향해 달려가는 가계부채, 부동산 거품 문제 등 한국경제가 점점 수렁에 빠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경제 정책 리더십에 공백이 생겼다. 이원종 전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물러나면서 청와대에서 열리던 일일 회의는 약식으로 열리고 있다. 일선 부처가 다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또한 현재 거국내각이 논의되면서 장관들의 교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나 장관들의 장악력도 크게 떨어진 상태다. 청와대에 정책 컨트롤타워가 사라진 것이다.

평창 올림픽도 최순실이 주물렀다

경향신문 조양호 조직위원장은 '나쁜 사람'?

지난 5월 초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평창올림픽 조양호 조직위원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만 물러나 주셔야겠습니다.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결국 조양호 조직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 과정에서도 최순실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최순실이 벌이던 각종 평창올림픽 이권 사업을 조양호 위원장이 결제해 주지 않자 축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東亞日報 문체부, 최순실 관련 업체 선정 압력

스위스 건설회사 누슬리는 지난해 8월 평창올림픽 개·폐막식장 건설 입찰을 포기했다. 공사비가 적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올해 1월 최순실이 소유한 더블루케이와 업무 제휴를 맺고서는 공사 수주를 다시 시도했다. 또한 올해 3월부터는 평창올림픽 조직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압력이 시작됐다.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이 평창올림픽 공사를 누슬리에게 맡기라며 요구했다는 것이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계속된 반대에 결국 누슬리와의 계약은 무산됐다.

검찰 수사 들어간 미르·K스포츠

노컷뉴스 K스포츠 업무 지시한 '崔 메모' 발견

그동안 최순실은 K스포츠재단 관련 사업을 일일이 챙긴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K스포츠재단 정현식 전 사무총장이 최순실의 자필메모를 공개했다. 메모에는 '개도국 관련 태권도 시범단 설립 사업'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나온다. 또한 메모의 성격은 자금 출연 기업 관계자들에게 재단의 추진 사업을 설명하고 추가 투자를 이끌어내라는 취지였다. 최순실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최순실의 자필 메모는 현재 검찰에 제출된 상태다.

중앙일보 대기업, 최씨 모녀에게 돈 직접 건네

검찰은 최순실과 측근들의 계좌가 개설된 8개 시중은행을 압수수색했다. 여기에 더해 미르,K스포츠 재단과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16개 대기업들 사이의 자금 흐름도 추적했다. 그 결과 대기업이 수십억원을 최순실에게 직접 건넨 단서를 포착됐다. 대기업이 재단을 거치지 않고 최순실 모녀에게 거액을 바로 전달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의 불법성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롯데, "안종범이 70억 강요했다"

검찰수사에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진술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롯데 관계자는 이미 두 재단에 45억을 출연했지만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70억원을 추가로 내도록 강요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도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재단 설립과 모금에 관여했다고 검찰에 밝혔다. 여기에 더해 K스포츠재단 정현식 전 사무총장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의 지시를 받아 SK에 80억원을 요구했다고 언론에 폭로했다.

東亞日報 박근혜 씨에게 책임 떠넘기는 안종범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 이에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오늘 소환조사를 한다. 또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대비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모든 일은 대통령 박근혜 씨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다.

최순실과 박근혜 씨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다"등의 이야기를 주변에 흘리고 있다.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의 법적 책임을 줄이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곳곳에 뻗친 최순실의 마수

중앙일보 내년 '최순실 예산' 2734억에 달해

최순실과 차은택이 추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 예산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 27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실 예산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이다. 차은택이 기획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예산은 2014년 71억원으로 시작해서 6년 동안 총 6100억원이 투입되는 거대 프로젝트이다. 야당은 우선 내년에 책정된 예산 1278억원을 모두 삭감하고 창조경제 사업 가운데 최순실 예산으로 의심되는 것들은 모두 깎겠다며 벼르고 있다.

東亞日報 최순실, 靑관저에 와서 잠도 자고 가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최순실은 박근혜 씨의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부터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차량을 타고 청와대를 수시로 출입했다고 한다. 또한 청와대 관계자는 최순실이 대통령 관저에서 종종 잠을 자고 간 적도 있다고 한다. 최순실의 전 남편 정윤회 씨 역시 이혼하기 전까지는 관저에 함께 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청와대 차량이 청와대 본관에 가는 것은 검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

경향신문 "박정희 답습한 한국, 대가 치를 것"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다뤘다. 내용은 이렇다. "한국의 대통령 박근혜 씨는 독재자 아버지를 답습했다.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한국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한국 국민이 느끼는 분노의 근원은 재벌개혁 실패에 있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대를 이은 정경유착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다.

내부 분열이 시작된 새누리당

중앙일보 친박 맏형 서청원, 비박에 선전포고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지도부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도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친박계의 맏형 서청원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이정현 대표의 사퇴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비박계가 김무성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려 한다면 친박계와 전쟁을 하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한국일보 친박의 몰락? 새누리 절반이 등 돌려

지도부 사퇴에 동참한 새누리당 의원은 약 60명이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9명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다. 여기에는 친박계 의원 10명 가량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박계 핵심 인사들의 움직임도 눈에 띄게 줄었다. 친박계 좌장 격인 최경환 의원은 이번 사태 이후 줄곧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 친박계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역사 오도하는 정권

경향신문 나라 망치고 '박정희 기념사업' 추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각종 박정희 기념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먼저 경북 구미시는 이미 1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며 각종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내용은 박정희 유품 전시, 추모관 조성 ,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등이다. 여기에 더해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박정희 특별기획전, 국제학술대회, 추도식, 기념음악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동력을 잃은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최순실 게이트'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좌초 위기에 빠졌다. 먼저 역사학회 및 역사단체 47곳이 시국선언에 동참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철회를 강력 요구했다. 또한 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란 의혹이 제기면서 시민단체들도 고시 철회에 가세할 전망이다. 정부는 애초 계획을 밀어붙인다는 입장이지만 1년짜리 교과서에 그칠 공산이 크다. 국민적 반대가 거세 채택 여부가 불투명하고 현재 학부모단체가 국정 역사교과서 불매운동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번뜩이는 시민의 기지

한겨레 청와대 행진 말고 다른 시위 방법 없나

지난 토요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정권 퇴진 촛불 집회에는 약 5만 명이 모여 '대통령 박근혜 씨의 하야'를 요구했다. 이후 행진을 시작한 시위대는 광화문 광장에서 경찰에 막혀 대치한 뒤 밤 늦게 해산했다.

이런 시위 행태는 2008년 광부병 집회 이후 계속 반복되어 왔다. 이에 기존 방식의 집회를 효과적으로 바꿔보자는 시민들의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다. 먼저 시민들의 참여를 더 쉽게 하기 위한 낮 시간대 시위가 제안됐으며 대규모 집회에는 여성, 노동자, 농민, 청년, 시민사회 등이 따로 모이자는 의견 또한 출퇴근 집회, 경적 집회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의경 출신인 서울대생은 권역별로 대학생들이 모여 서울 시내 전역을 휩쓰는 파도타기식 가두행진도 제안했고요.

최순실 관련 루머에 발끈하니

세계일보 최순실 관련 보도·루머에 법적 대응

최순실은 귀국하기 전 세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에 최순실과 세계일보와의 관계에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자 세계일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14개 언론사와 카페, 블로그에 대해 형사고소를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중재를 신청한 것이다. 또한 세계일보의 대주주는 통일교 통일그룹이지만 세계일보의 보도에 어떤 간섭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늘의 칼럼

중동고등학교 시국선언문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들은 근래 벌어지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울분을 토로하며 중동고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해 개헌까지 제안하였다. 헌법은 민주법치국가의 근본이고 가장 신성한 법으로, 결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없다. 하물며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며 최순실을 비호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광복 이후 4.19혁명, 서울의 봄,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생 등 장구한 민주투쟁의 역사를 지닌 세계 최고의 민주법치국가의 수장임을 스스로 부정하였다. 그런 박근혜에게 더 이상 대통령이라는 칭호는 어울리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노태우가 내란 음모죄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듯이 박근혜 역시 일반 국민으로 돌아와 국가 기밀 유포와 국가 및 국민을 저버린 책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고 성실히 속죄하여야 할 일이다. 그것이 우리의 무너진 자존심과 우리의 무너진 애국심을 다시금 세계만방에 우뚝 세울 수 있는 합당한 방도일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훼손된 민주주의와 훼손된 법치주의를 다시금 온 누리에 빛을 발하게 할 유일한 방도일 것이다.

전국의 깨어있는 학생 분들의 시국선언동참을 촉구하며 2016년 10월 28일 금요일에 중동고 110기 일단이 들끓는 마음으로 선언하였음.